

**KOSDAQ | 소프트웨어와서비스**

**바이브컴퍼니 (301300)**

**빅데이터, AI 산업 내 돋보이는 존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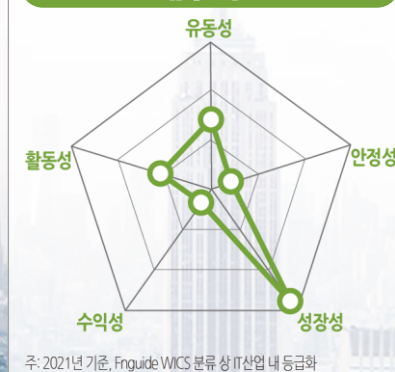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바이브컴퍼니는 빅데이터, AI(인공지능) 관련 오랜 업력을 가진 기업. 동사는 2000년 7월 '다음소프트' 라는 사명으로 설립. 매출 비중은 썬트 렌드 부문 20%, AI Solver 부문 63%, AI Assistant 부문 16%, 기타 1%로 구분
- 빅데이터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 중.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은 2021년 1,626억달러에서 2026년에 2,734억달러로 성장 전망(연평균 +11.0%). AI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며 지속 성장 전망. 글로벌 AI 시장은 2021년 약 870억달러에서 2030년 1조 5,910억달러로 연평균 38% 성장 전망
- 2022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357억원, -184억원을 기록. 2023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404억원 (+13.2% YoY), -141억원(적자지속 YoY)으로 추정. 고마진 사업 확대, 신규 서비스 런칭 통해 성장과 손익 개선을 도모할 전망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벨류에이션 지표**



# 바이브컴퍼니 (301300)

Analyst 백종석 jongsukbaek@kirs.or.kr  
RA 김정은 jeongeunkim@kirs.or.kr

KOSDAQ

소프트웨어와서비스

## 바이브컴퍼니는 빅데이터, AI 관련 국내 대표기업

바이브컴퍼니는 빅데이터, AI(인공지능) 관련 오랜 업력을 가진 기업. 동사는 2000년 7월 '다 음소프트' 라는 사명으로 설립. 매출 비중은 썬트렌드 부문 20%, AI Solver 부문 63%, AI Assistant 부문 16%, 기타 1%로 구분

## 빅데이터, AI 시장은 고성장 중

빅데이터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 중.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은 2021년 1,626억달러에서 2026년에 2,734억달러로 성장 전망(연평균 +11.0%). AI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며 지속 성장 전망. 글로벌 AI 시장은 2021년 약 870억달러에서 2030년 1조 5,910억달러로 연평균 38% 성장 전망

## 바이브컴퍼니 투자포인트

1) 빅데이터, AI 분야 높은 경쟁력 보유, 2) 2023년, 수익성 위주 경영 기대

## 2023년은 점진적인 손익 개선을 기대

2022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357억원, -184억원을 기록. 2023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404억원(+13.2% YoY), -141억원(적자지속 YoY)으로 추정. 고마진 사업 확대, 신규 서비스 런칭 통해 성장과 손익 개선을 도모할 전망

###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19	2020	2021	2022P	2023F
매출액(억원)	163	256	446	357	404
YoY(%)	N/A	56.9	74.5	-20.0	13.2
영업이익(억원)	-3	-34	-91	-184	-141
OP 마진(%)	-2.1	-13.1	-20.5	-51.5	-34.9
지배주주순이익(억원)	-8	-26	-88	-198	-160
EPS(원)	-164	-524	-1,637	-3,546	-2,644
YoY(%)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배)	N/A	N/A	N/A	N/A	N/A
PSR(배)	0.0	6.4	6.5	2.9	4.3
EV/EBIDA(배)	25.8	N/A	N/A	N/A	N/A
PBR(배)	0.0	5.6	9.2	7.6	23.3
ROE(%)	-5.2	-11.0	-27.6	-85.6	-149.8
배당수익률(%)	N/A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Company Data

현재주가 (3/8)	28,500원
52주 최고가	52,200원
52주 최저가	16,800원
KOSDAQ (3/8)	813.95p
자본금	28억원
시가총액	1,733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6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8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53억원
외국인지분율	0.68%
주요주주	김경서 외 12인 32.79%
	카카오 8.22%

### Price & Relative Performance



###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3.0	5.0	-28.8
상대주가	-26.2	0.3	-23.8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 기업 개요

### 1 바이브컴퍼니는 빅데이터, AI 관련 국내 대표기업

**바이브컴퍼니는 2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빅데이터, AI 기업.  
국내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 런칭**

바이브컴퍼니는 빅데이터, AI(인공지능) 관련 국내에서 20년 이상의 오랜 업력을 가진 기업이다. 동사는 2000년 7월 ‘다음커뮤니케이션’ 내 사내벤처로 ‘다음소프트’ 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었다. 2020년 8월 동사는 ‘바이브컴퍼니’ 로 상호를 변경하고 동해 10월, 기술성장기업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동사가 설립초부터 가장 주목한 부분은 인터넷 문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넘쳐나는 문서들이 곧 정보의 홍수로 이어진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동사는 수많은 문서의 정보처리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내에 ‘자연언어처리 연구소(NLP Lab)’를 설립했다.

바이브컴퍼니는 2003년 오피니언마이닝 솔루션인 ‘토크로(Talkro Analyzer)’ 개발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미니홈피 방문자가 AI 에이전트 ‘아우’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AI 미니홈피 서비스 ‘아우닷컴’을 당시 최초로 선보이기도 했다. ‘아우’ 서비스는 챗봇 기술로는 당시 국내 최초의 완성형 서비스였다.

동사는 2007년 소셜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트렌드맵’을 개발한 이후 2010년 10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썸트렌드 Biz’ 서비스를 런칭했다. 썸트렌드 사업의 경우 동사 3대 사업중 중 하나로, 구독형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현재 200여개 이상의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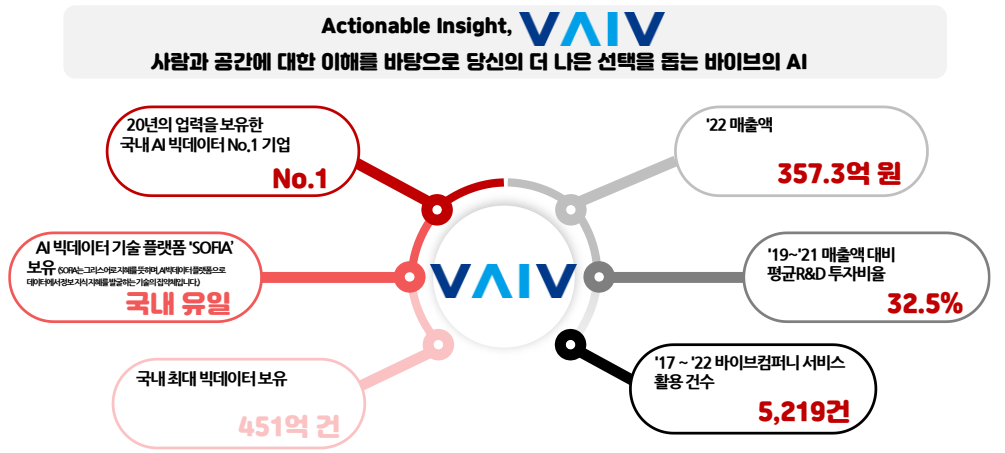
**동사는 세계 최초로 ‘AI Report’  
서비스 런칭. 이후에도  
메타버스 서비스 ‘듀플레넷’,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올리’  
등을 런칭**

한편 동사는 2016년 세계 최초로 ‘AI Report’ 서비스를 출시했다. AI 리포트는 바이브가 보유한 AI 어시스턴트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예를 들면,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빠르게 폭넓은 종목 및 시황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매일 장 시작전 50여 개의 AI 리포트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동사는 2022년 메타버스 서비스인 ‘듀플레넷’을 출시했고, 2022년 연말에는 자회사 ‘퀀트’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인 ‘올리’를 출시하기도 했다.

동사는 이렇듯 빅데이터 분야 국내 선두기업으로 출발하여 AI를 활용한 챗봇, 증권/자산 관련 리포트 발행 서비스, 기타 메타버스와 디지털트윈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브컴퍼니



자료: 바이브컴퍼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결 자회사 퀴닛, 자동 운용을 위한 AI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동사가 60% 지분을 보유한 연결 자회사 '퀴닛'(대표이사 한덕희)은 증권 및 디지털 자산의 투자와 자동 운용을 위한 AI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퀴닛은 2019년 설립되어 2020년 바이브컴퍼니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퀴닛은 투자모델 설계 및 자동운영 플랫폼인 '핀터'를 보유하고 있다. 퀴닛은 새로운 기술과 금융 모델을 연구/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핀터에 축적하고, 핀터에서 검증된 우수 모델들을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

퀴닛은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여러 증권사에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2년말에는 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올리'를 출시했다.

퀴닛의 관계사는 퀴닛투자자문(AI 기술력 기반 금융자문서비스 기업), 디렉셔널(P2P 주식대차거래 중개 서비스 제공 기업)이 있다.

**2 매출 구성, 주요 서비스/제품**

**동사의 주 사업 부문은 3가지. 썬트렌드, AI Solver, AI Assist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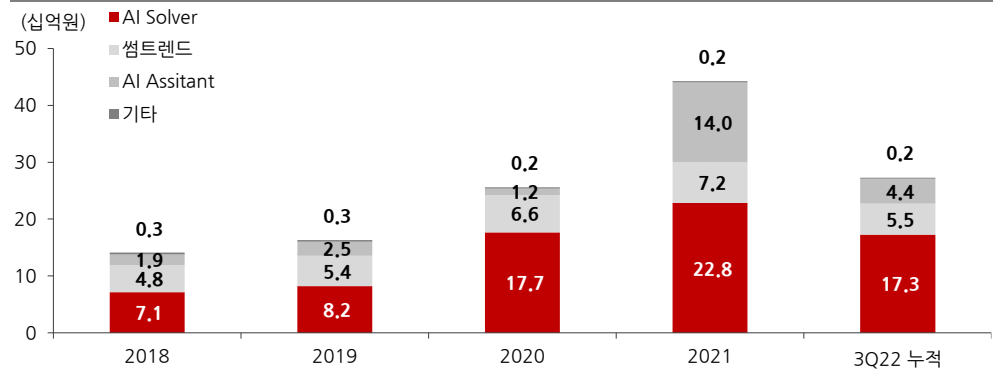
동사 매출 비중은 썬트렌드 부문 20%, AI Solver 부문 63%, AI Assistant 부문 16%, 기타 1%로 구분된다(2022년 3분기 누적 기준).

썬트렌드 부문을 간략히 설명하면, 451억 건의 빅데이터에 기반한 구독형 데이터분석 플랫폼으로, 사용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타사업부문 대비 수익성이 높아 향후에도 동사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주고객은 금감원, 문체부, 한국은행, 삼성전자, LG전자, 신세계, 오투기, SKT, 롯데카드, MBC, SBS, 고려대 등 주요 금융공기업 및 대기업과 대학 등이다. 뿐만 아니라 동사 고객에는 일반 개인 구독고객도 존재한다. 다만, 일반고객향 매출은 2022년 연간 기준 6억원대로 신규고객 유입 성장률은 빠르나 그 규모가 크지는 않다.

AI Solver 부문의 경우, 동사의 AI 기술을 바탕으로 각각의 고객(정부기관, 기업)이 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사업으로 꾸준한 재계약과 신규 고객 유입이 기대되는 SI(시스템 구축, 통합) 사업이다. 동 사업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즉 AI기반 불법 추심 탐지, 금융 위험 조기 경보, 유행성 질환 예측,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디지털트윈 구축 등 솔루션 구축/제공 서비스 사업이다. 주고객은 정부 기관과 대기업 위주이다.

AI Assistant 부문의 경우, 국내 최고 수준의 기계독해기술(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MRC)과 자연어처리 기술 등을 기반으로 대화형 AI 서비스를 구축해 주는 서비스이다. 동사는 AI 챗봇 분야에 오랜 연구를 기울여 온 기업 중 하나로, 공공기관/대기업 고객들에게 대화형 AI 서비스를 구축해 준 이력을 보유 중이다. 대표적으로 2021년 우정사업본부에 챗봇 구축서비스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부문별 매출 추이**



자료: 바이브컴퍼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I Solver, AI Assistant 부문 매출은 건별로 상이. 썬트렌드는 다양한 가격대의 구독료 수취**

참고로 AI Solver, AI Assistant 부문의 경우 구축형 매출로, 고객별로 요구되는 사양 및 비용 등에 따라 매출 규모는 건 별로 모두 상이하다. 썬트렌드 부문의 경우 구독형과 구축형 매출이 모두 있는데, 구독형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깊이와 범위에 따라 다양한 카테고리의 구독료를 수취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썬트렌드 서비스 가격**

썬트렌드 비즈	월 구독료 300 만원(기관/기업향 범용)
썬트렌드 프로	월 구독료 1,000 만원 이상(기관/기업향 맞춤형)
썬트렌드 트렌드	3, 10 만원 등(B2C 서비스)
썬트렌드 클라우드	미정(기관/기업향 중저가)

자료: 바이브컴퍼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최대주주는 김경서 외 12인. (썬카카오는 9%를 보유 중)**

**대주주는 김경서 의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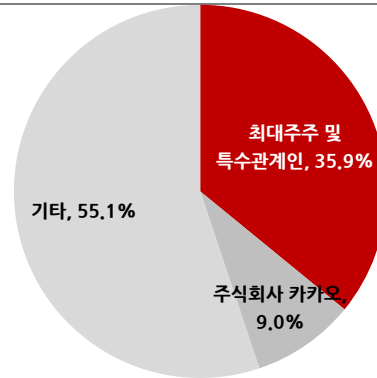
최대주주는 김경서 외 12인으로 지분 35.9%를 보유 중이다(2022년 9월말 사업보고서 기준).

김경서 의장은 연세대학교 전산과학과 학사/석사 및 동 대학 컴퓨터산업시스템공학 박사 출신이다. 1997년부터 (썬카카오(舊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 사내 창업으로 동사가 설립(2000년)된 이후 2001년

동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2015년부터는 동사의 기술총괄자문 의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동사의 기원격인 (썬)카카오는 동사 지분 9%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주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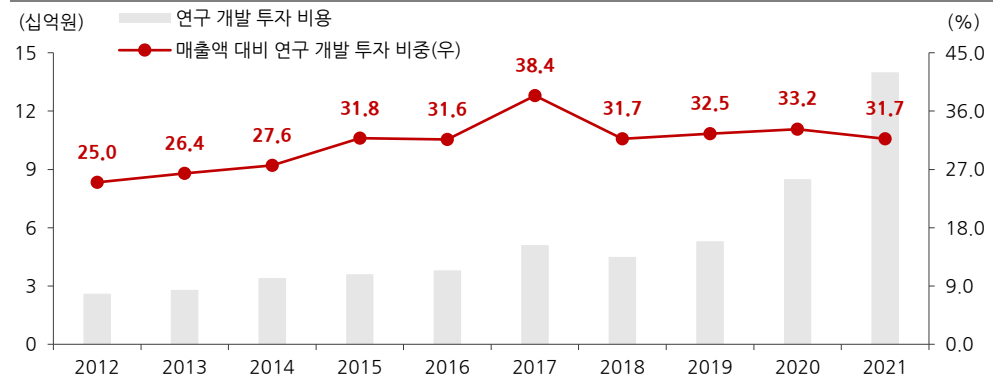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2년 9월 30일 기준

4 연구/개발 인력 현황, 연구개발 투자 현황

동사는 기술력을 중시하는 기업

동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2022년 3월말 기준 154명으로, 정규직 총원 261명 중 약 60% 비중이다. 동사는 빅데이터, AI 관련 기술력 확보를 중시하는 사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0% 초반을 보일 정도로 높다.

연구 개발 투자 현황



자료: 바이브컴퍼니,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빅데이터 응용 시장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중**

**빅데이터는  
정형데이터 뿐 아니라  
비정형, 반정형데이터를  
포괄하는 개념**

빅데이터(Big Data)라는 이름이 주는 인상으로 인해 데이터의 크기나 규모가 크면 빅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단순히 데이터 세트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빅데이터라고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빅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던 정형데이터(Structured Data)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분석이 어려웠던 비정형데이터(Unstructured Data) 및 반정형 데이터(Semi-structured Data)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만족시켜야 할 5가지 특징(5V)이 존재한다.

**빅데이터의 데이터 종류**

정의	설명
정형(Structu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li> <li>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스프레드시트 등이 포함됨</li> </ul>
비정형(Unstructu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li> <li>텍스트 문서, 이미지, 동영상, 음성 데이터 등이 포함됨</li> </ul>
반정형(Semi-Structu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메타데이터나 스키마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li> <li>XML, HTML 등이 포함됨</li> </ul>

자료: 언론취합,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분류되기  
위해 만족시켜야할 요건은 5V**

5V는 Volume, Velocity, Variety, Veracity, Value으로서, 각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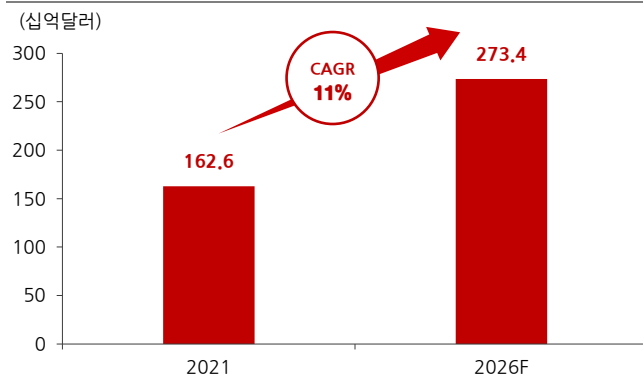
- Volume(부피):** 데이터의 양을 의미함으로써, 부피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빅데이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들의 사이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할 수 있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알고리즘과 AI가 요구된다.
- Velocity(속도):** 실시간으로 쌓이는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 및 분석이 가능해야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 Variety(다양성):** 단순히 정형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해서 빅데이터라고 불리지 않는 것처럼, 과거에는 처리 및 분석이 어려웠던 비정형 데이터나 반정형 데이터까지 데이터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즉,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 세트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성과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 Veracity(정확성):** 빅데이터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정확하고, 적시성을 가져야만 한다. 예를 들어 정형 데이터가 Veracity를 갖기 위해서는 오타가 없어야 하고,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소셜 노이즈나 bias가 최대한 제거되어야 한다.
- Value(가치):** 빅데이터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최근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직접적인 활용이 많아지면서, 빅데이터 필수요건 관련하여 과거의 5V에 더해 7V(Validity(타당성), Volatility(변동성))까지 화자되기도 한다. 이렇듯 빅데이터 산업은 그 요구되는 특성이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빅데이터 시장은 국내/외 모두 견조하게 성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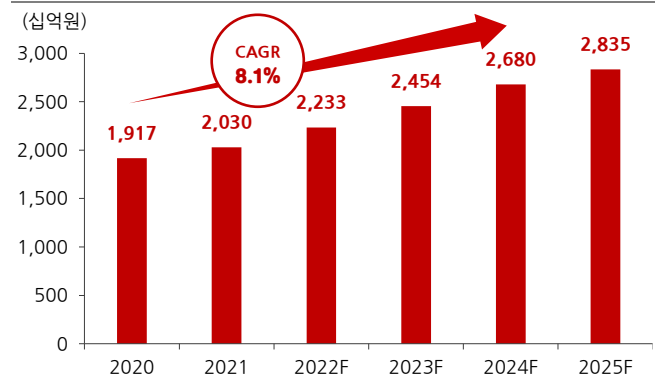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라 칭하게 되고, 빅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 시장은 국내/외 모두 구조적으로 성장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은 2021년 1,626억달러에서 연평균 11.0% 성장하여 2026년에는 2,734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글로벌 시장 환경에 발맞추어 2020년 1조 9,171억원에서 2025년 2조 8,353억원으로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되며, 연평균 8.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IDC 전망치).

글로벌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 전망



자료: MarketsandMarket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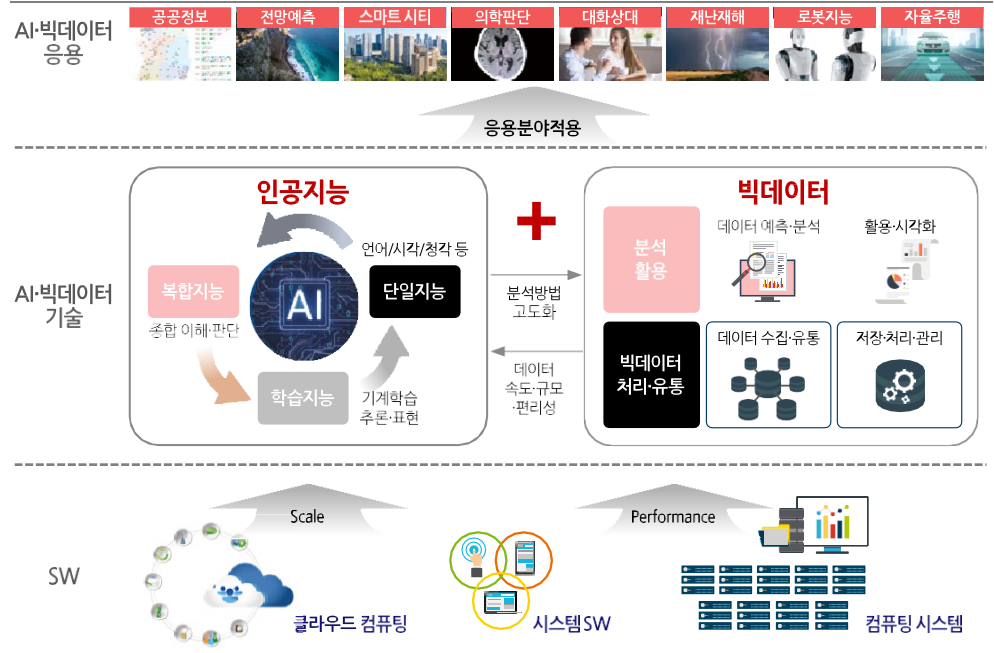
자료: IDC,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빅데이터 산업과 AI 산업은 상호보완관계. 영향을 주며 시너지 발생 가능**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 흐름은 코로나 이후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수요에 더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다양한 SNS 플랫폼의 등장, IoT 적용 기기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빅데이터 산업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산업과 상호보완 관계로, 인공지능에 있어서 핵심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빅데이터 시장의 구조적 성장은 결국 AI 산업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빅데이터 산업에서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유통하여 이를 저장, 처리 및 관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위의 5V 조건을 만족한 빅데이터가 AI의 학습 대상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AI가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AI 산업의 분석방법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활용한 빅데이터 처리 및 관리 기술도 발전할 수 있다.



빅데이터와 AI의 관계



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I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중**

AI는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것. AI 기술의 응용처는 크게 5가지 분야로 요약됨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갖고 있는 지능(Natural Intelligence)과 비교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Natural Intelligence를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분야를 의미한다. 즉,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등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AI이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AI는 Open AI사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 구글의 답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AlphaGo, 음성인식 AI인 Apple의 시리(Siri), 삼성전자의 빅스비(Bixby), 아마존의 알렉사(Alexa) 등이 있다.

AI의 종류는 크게 Weak AI(Narrow AI)와 Strong AI로 구분된다. Weak AI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특화된 AI를 의미하는 반면, Strong AI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AI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때 스스로 학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춘 AI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AI는 단일 기능에 특화된 Weak AI이며, Strong AI는 향후 기대하고 지향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1월 10일, Microsoft사는 ChatGPT를 개발한 Open AI에 1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AI 산업과 기존 산업에 AI를 접목시키는 각종 부가 가치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AI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한데, 주요 응용처는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 1.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 및 조작할 수 있다. 서면 텍스트와 음성 모두 처리가 가능하며,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하다. 바이브컴퍼니의 썬트렌드, Open AI의 ChatGPT, Apple의 Siri, 삼성전자의 빅스비, 아마존의 Alexa가 구현하는 서비스가 NLP 기반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 2.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전문가 시스템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으로 구성된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에 기초한 추론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다시 말하면, 특정 분야의 축적된 전문 지식을 컴퓨터에 기억시키면 컴퓨터 시스템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모방하여 추론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 응용 분야 중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 에스토니아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 도입했던 'AI 판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주된 응용처는 의료 진단 시스템, 설계 시스템, 세금 상담 전문가 시스템 등이 있다.

### 3.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데이터 마이닝이란 빅데이터의 분석방법 중 하나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유용한 정보 및 지식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해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예측의 정확도(accuracy)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활용 분야에서 도 알 수 있듯, 빅데이터 산업과 AI 산업은 상호보완적이다.

### 4.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비전 AI라고 불리는 영역으로,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분석 및 추출하는 데에 AI가 활용된다. 안면 인식, 자율주행, 이미지 검색, 스마트팩토리의 AI 비전 검사기 구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도입되며 그 활용도는 매우 높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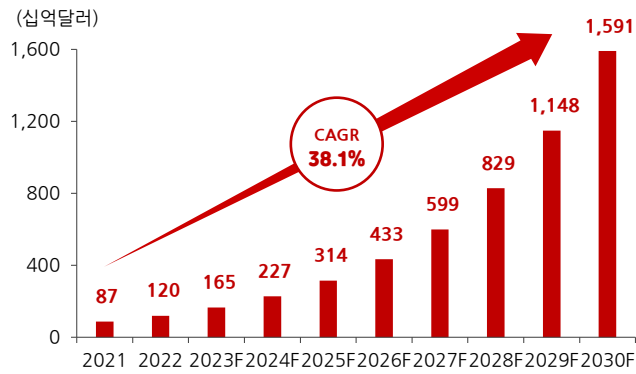
### 5. 지능 로봇(Intelligent Robots)

AI를 활용한 로봇을 통칭하는 분야로, 외부 환경을 인식한 후 자율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작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로봇이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해석을 통해 직접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의거한 행동까지 할 수 있는 단계를 최종적으로 지향한다.

**글로벌 AI 시장,  
연평균 38% 고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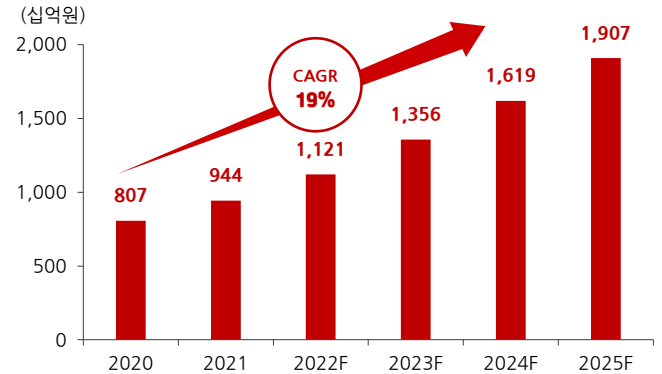
이처럼 AI는 다양한 산업에 접목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은 2021년 약 870억달러에서 2030년 1조 5,910억달러로 연평균 38%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의 경우, IDC 전망치에 따르면 2020년 8,072억원에서 2025년 1조 9074억원으로 연평균 19%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 전망



자료: Precedence Research,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인공지능(AI) 시장 전망



자료: IDC,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3 경쟁사 동향

**동사 경쟁사는 코난테크놀로지, 루닛, 알체라, 셀바스AI 등. 가장 유사한 경쟁사는 코난테크놀로지로 파악됨. 다만, 향후 성장 지향점은 다소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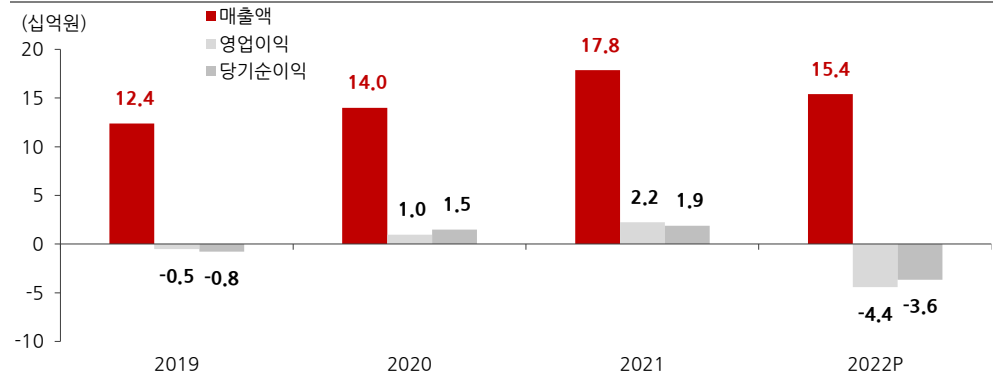
국내/외에 다양한 빅데이터 및 AI 관련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어떠한 응용 분야에 보유하고 있는 AI 기술이 특화되었는가에 따라 같은 산업 내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업간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 국내 대표적인 AI 기업으로는 텍스트 및 영상 분야 AI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 AI 영상 의료진단 및 판독 보조 솔루션을 개발/판매하는 루닛, AI 영상인식 분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알체라, AI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기술을 보유한 셀바스 AI 등이 있다. 바이브컴퍼니의 경우에는 AI 중에서도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 가장 특화된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서, 국내 기업 중 가장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사는 코난테크놀로지라고 판단한다.

코난테크놀로지는 2022년 7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다. 여타 기업들 대비 바이브컴퍼니와 코난테크놀로지가 가장 유사한 점은 설립 이후(바이브컴퍼니는 2000년, 코난테크놀로지는 1999년 설립) 지금까지 자연어 처리 기반 기술(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왔다는 것이다. 긴 업력에 걸맞게 두 회사 모두 텍스트 분야에 각각 AI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양사는 모두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경영을 해오고 있으며, 이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30% 이상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바이브컴퍼니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NLP 기술에 더해 본인들의 강점을 빅데이터에서 찾아 향후의 사업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이와 달리, 코난테크놀로지의 경우 빅데이터에서 신사업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향후 영상인식 AI 제품군을 통해 매출을 확대/다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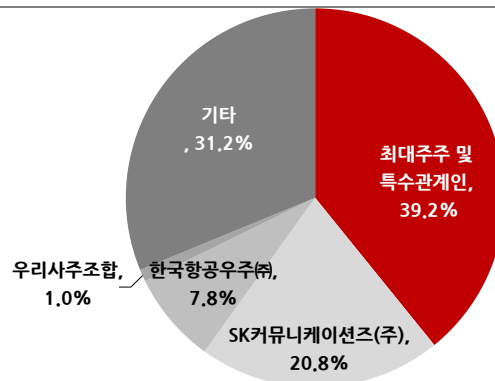
참고로 코난테크놀로지는 작년말 대비 올해 3월 3일 종가기준으로 주가가 약 395% 상승했다. AI 텍스트, AI 영상 관련 분야에서의 높은 기술력과 전세계적인 AI 시장 성장 기대감, 그리고 SKT(지분 21% 보유)와 한국항공우주(지분 8% 보유) 등 대기업의 지분 투자 현황과 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에 시장이 반응했다고 보인다. 한편, 코난테크놀로지의 누적 고객이 2,500여개에 이르는 등 폭넓은 고객군 확보에 대해서도 시장이 높은 관심과 신뢰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난테크놀로지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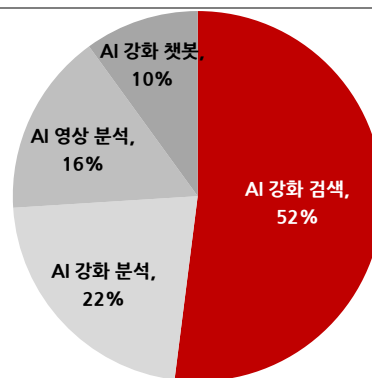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코난테크놀로지 주주 구성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2년 9월 30일 기준

코난테크놀로지 부문별 매출 비중(2021년 기준)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빅데이터, AI 분야 높은 경쟁력 보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분야에서  
동사는 선도적 사업자**

바이브컴퍼니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내수시장 내에서 가장 선도적 사업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 200여개 이상의 다양한 고객들에게 451억건에 이르는 다양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구독형 데이터분석 결과/서비스(썸트렌드)를 제공 중이다. 동사의 업력과 인적 자원의 우수성은 이미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파악된다. 결국 빅데이터 관련 사업의 핵심 경쟁력은 많은 데이터의 확보와 관리력인데, 동사는 이미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관리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획보된 방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편향없이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아는 기업이란 점이 동사 투자포인트이다.

**AI 챗봇 분야에서도 동사는  
업계 선두**

AI 분야에서도 동사의 기술력은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기업 개요에서 서술했듯이 동사는 AI 챗봇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를 이룬 이력이 있다(2005년, '아우' 서비스). 그리고 최근 챗봇 중 기계 독해 분야 정확도 측정 경쟁에서 1위를 기록한 점도 주목된다.

'KorQuAD'라는 웹사이트는 LG CNS D&A Research Center 소속의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각 챗봇 관련 기업들의 솔루션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떠한 챗봇이 기계 독해 분야에서 가장 정확도가 우수한지 평가한다. 여기에서 동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계 독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아래 표 참조). 물론 향후 각 기업들의 챗봇 기술력은 상호 견전한 경쟁 하에서 각각 발전해 나갈 것이나 동사의 챗봇 기술력은 업계 최상위권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브컴퍼니, 국내 최고 수준 기계 독해 기술 확보**

**기계 독해 기술 기반 자연어 QA, 중요 콘텐츠 선별 등 바이브의 다양한 사업과 접목할 계획**

**국내 최고 수준의 기계 독해 기술 확보**

**도식화된 숫자연산 기계독해 과제**

Passage

경청 제철철리에는 전세계 40개 나라 선수 570명이 참가합니다. 6개 종목에서 금메달 80개를 놓고 우정의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소치 올림픽때보다 금메달 수는 8개가 늘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인빙 대회에서 6개 전 종목에 걸쳐 역대 가장 많은 선수 38명이 출전합니다.

Reading

↓

Question

소치 올림픽 때 금메달 수는 몇개였는가?

Reading

8C B

↓

Answer

72개

**KorQuAD 1.0 리더보드 캡처화면**

Rank	Reg. Date	Model	EM	F1
-	2018.10.17	Human Performance	80.17	91.20
1	2022.12.13	VAIV AI VAIV Company AI Lab (Kisu Yang)	<b>88.28</b>	<b>95.79</b>
2	2020.08.24	SDS XFormer+ (single model) Samsung SDS AI Research	88.10	95.57
3	2022.03.18	HAIQV-LM-Large V1.0 (single model) Hanwha Systems/ICT NLP Part	87.71	95.39
4	2020.07.13	LGSP-LM-Large V2.0 LG AI NLP Team	87.46	95.39
5	2021.11.03	SKERT-Large 2.0.0 (ensemble) Skeller Labs	87.94	95.25

**숫자 연산 기계 독해 과제 수행 및 기계 독해 평가 1위를 받으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함**

자료: 바이브컴퍼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2 2023년, 수익성 위주 경영 기대

2022년은 매출 축소,  
신사업 관련 비용 증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실적 부진.  
2023년에는 수익성 위주 경영  
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

바이브컴퍼니는 2022년 연간 실적이 매우 부진했다. 2022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357억원, -184억원, -21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대비 크게 악화된 실적이었다(vs 2021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각각 446억원, -91억원, -95억원).

다만 2022년 전년 대비 20%에 이르는 매출액 감소의 주원인은 대규모 구축 건인 '우정사업본부 챗봇 구축사업' 종료로 인한 것이었다. 한편 2022년에는 매출액 뿐 아니라 손익의 악화가 눈에 띄는데, 이는 1) 매출 감소로 규모의 경제 악화, 2) 신사업 관련 비용 증가, 3)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등에 기인했다.

2023년에 동사는 수익성 위주 경영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동사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손익 개선 노력을 펼칠 전망이다, 이는 1) 부서 개편 및 인력 재배치, 2) 영업팀 신설을 통한 매출 증대, 3) 매출 구조의 개선을 통한 손익 개선 추구 등이다.

우선 첫번째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익성 낮은 일감에 인력 배치를 줄이고 효율성이 낮은 업무를 줄이는 등 수익성을 높일 업무를 위해 인력 배치/구조를 조정했다. SI 구축 관련 인력을 세종시 신사업에 집중 배치하여 업무 효율 향상과 인력간 시너지를 도모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다수의 인력이 대전 대덕단지와 세종시에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이 존재했었다.

두번째, 영업팀을 신설하여 매출액 증대를 꾀할 전망이다. 동사는 기존에는 별도의 영업 조직 없이 각 부문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관리하기 위해 영업 방식을 전환, 수익성 높은 분야에 영업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번째, 매출 구조의 개선을 통해 손익 개선을 이루어 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1) 마진이 좋은 썬트렌드 서비스 매출을 증가시키고, 2) 기업형 AI 챗봇 사업을 하반기에 새롭게 런칭할 예정이고, 3) 메타버스 관련 '듀플레넷' 서비스의 재정비/재검토 및 마케팅비용 축소를 진행할 전망이다.

마진 높은 썬트렌드 매출 확대,  
저마진 사업 축소를 위해 노력

위 방안들을 통해 동사는 2023년 매출 비중의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동사 매출 비중은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썬트렌드 부문 20%, AI Solver 부문 63%, AI Assistant 부문 16%, 기타 1% 이었다. 2023년에는 이를 썬트렌드 부문 25%, AI Solver 부문 56%, AI Assistant 부문 18%, 기타 1% 정도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즉 마진이 높은 썬트렌드 부문 매출을 늘리고, 저마진 사업인 AI Solver 부문 비중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2023년에는 수익성 위주 경영을 통해 전사적으로 영업직자의 축소를 기대한다.

##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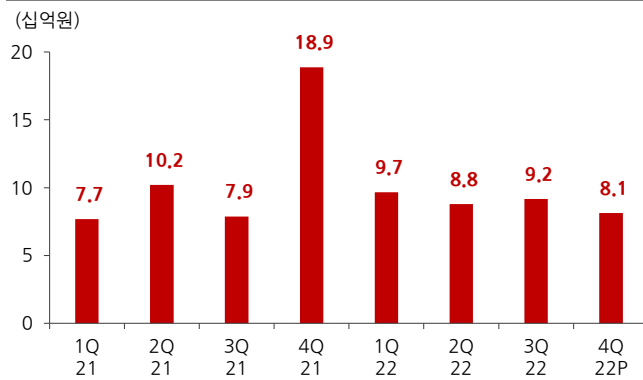
### 1 2022년, 매우 부진한 실적으로 마감

매출 감소와 신사업 비용, 인건비로 인해 2022년 부진

바이브컴퍼니의 2022년 4분기 실적은 부진했다.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81억원, -77억원을 기록했다. 부진한 실적은 1) 평소와 달리 SI 구축 성수기(4분기)임에도 기업 고객들의 비용 절감 기조로 SI 구축 주문이 부진했고, 2) 인력의 증가로 인해 고정비 부담이 커졌으며, 3)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출은 지속되는 상황 등에 기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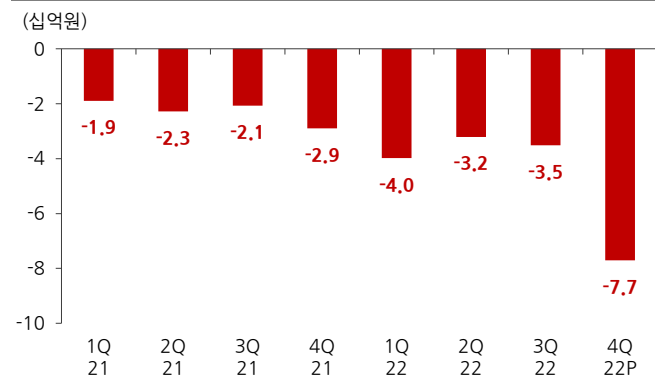
동사의 2022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357억원, -184억원을 기록했다(전년 대비 각각 -20.0%, 적자 지속). 이는 1) 매출 감소로 규모의 경제 약화, 2) 개발비 및 신사업 관련 비용 증가, 3)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등에 기인했다.

연결기준 매출액 분기 추이



자료: 바이브컴퍼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결기준 영업이익 분기 추이



자료: 바이브컴퍼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2 2023년, 점진적인 실적 개선 기대

고마진 사업 확대, 신규 서비스 런칭 통해 성장, 손익개선 도모

바이브컴퍼니의 2023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404억원(+13.2% YoY), -141억원(적자지속 YoY)으로 추정한다. 전년 대비 매출액 성장을 기대하는데 1) 씬트렌드 부문의 성장, 2) 하반기부터 구독형 기업형 AI 챗봇 매출 발생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업손실은 지속될 전망이다, 점진적인 감소를 기대한다. 이는 1) 고마진 사업 매출 확대, 2) 인력 효율화 효과, 3) 각종 비용절감 노력 등 효과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사는 마진이 높은 씬트렌드 부문 매출을 늘리고, 저마진 사업인 AI Solver 부문 매출 비중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노력 등으로 영업적자의 축소를 모색할 전망이다. 또 올해 상반기엔 구독형 씬트렌드 서비스인 '씬트렌드 클라우드' 출시를 통해 증가 가격대 대상 고객/잠재고객을 공략하고, 하반기엔 구독형 기업형 'AI 챗봇'(서비스명 아직 미정)을 신규로 런칭하여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참고로 신임 공동 CEO인 김성언 대표는 전CFO로, 한올회계법인, 태성회계법인에서 회계사/세무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만큼 전사적으로 비용 절감 경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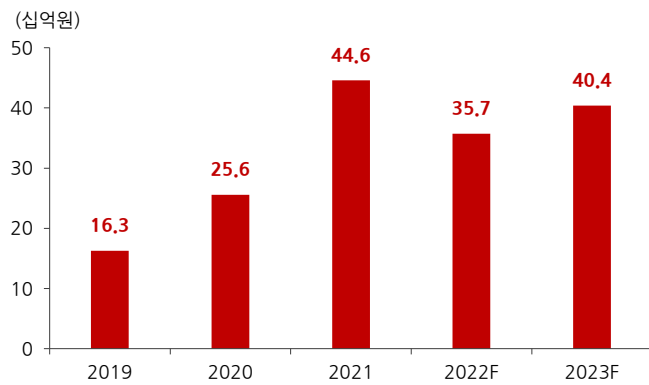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F	2023F
매출액	163	256	446	357	404
AI Solver	82	177	228	225	245
썸트렌드	54	66	72	73	85
AI Assistant	25	12	140	56	71
기타	3	2	6	3	3
영업이익	-3	-34	-91	-184	-141
지배주주순이익	-8	-26	-88	-198	-160
YoY 증감률					
매출액	-	56.9	74.5	-20.0	13.2
영업이익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순이익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이익률	-2.1	-13.1	-20.5	-51.5	-34.9
지배주주순이익률	-4.8	-10.1	-19.8	-55.5	-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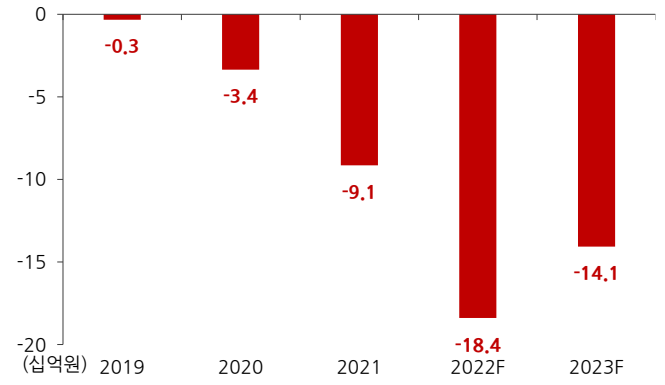
자료: Dar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결기준 매출액 연간 추이 및 전망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결기준 영업이익 연간 추이 및 전망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Valuation

### 동사가 속한 업종 특성상 높은 밸류에이션 상황

**동사는 PBR 관점에서  
시장 대비 매우 고평가**

바이브컴퍼니의 현재 시가총액은 1,733억원 수준이다. 2023년 동사의 PBR은 23.3배 정도로, 코스닥 시장(2.4배) 대비 매우 고평가로 관측된다. 동사는 현재 적자 기업으로 PER 밸류에이션은 산정 및 비교가 불가한 상태이다.

**최근 AI 산업에 대한  
높은 기대가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가치에 투영 중.  
변동성을 유의해야**

동사의 Peer그룹으로는 코난테크놀로지, 루닛, 알체라, 셀바스AI, 솔트룩스, 마인즈랩 등 국내 AI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기업 모두 현재 적자 기업이면서(셀바스AI는 2022년 영업 및 순이익 흑자), 컨센서스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Peer그룹과의 비교는 시가총액과 PSR 측면에서 정다면 가능하다. 코난테크놀로지, 루닛, 알체라, 셀바스 AI, 솔트룩스, 마인즈랩의 시가총액 평균은 4,688억원이고, PSR 평균은 14.7배이다. 따라서 바이브컴퍼니는 이들 기업과 비교하여 시가총액과 PSR 측면(4.3배)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이다.

최근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AI 관련 업종 성장성,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 매우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hatGPT 가 전세계적으로 시장 화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AI 산업에 대한 높은 기대가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 기업가치에 투영되고 있어 투자자는 관련 주가 변동성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산정은 상당기간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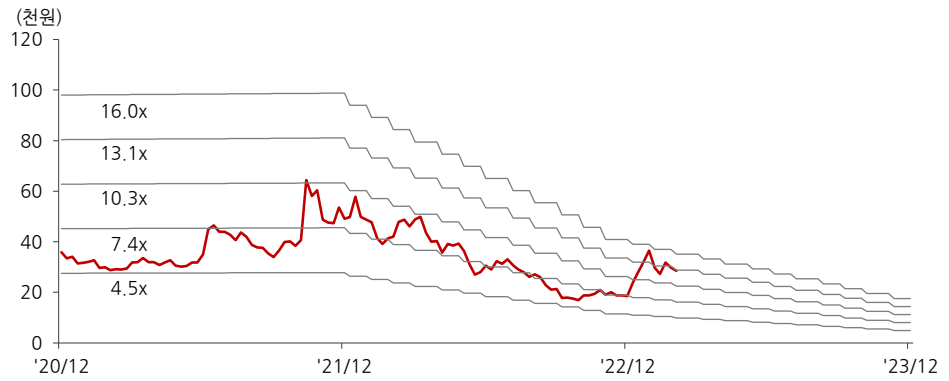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단위: 원, 십억원, 배)

기업명	종가	시가 총액	매출액			PSR			PER			PBR		
			2021	2022F	2023F	2021	2022F	2023F	2021	2022F	2023F	2021	2022F	2023F
코스피	2,432	1,859,417	2,924,624	2,722,975	2,815,436	-	0.6	0.6	-	11.7	14.0	-	1.0	0.9
코스닥	814	383,575	274,267	113,327	128,964	-	1.7	1.4	-	22.4	18.6	-	2.6	2.4
<b>바이브컴퍼니</b>	<b>28,500</b>	<b>173</b>	<b>45</b>	<b>36</b>	<b>40</b>	<b>6.5</b>	<b>2.9</b>	<b>4.3</b>	-	-	-	<b>9.2</b>	<b>7.6</b>	<b>23.3</b>
코난테크놀로지	130,100	739	18	-	-	-	-	-	-	-	-	-	-	-
루닛	44,500	545	7	-	27	-	-	20.4	-	-	-	-	-	18.8
알체라	14,940	322	10	-	25	47.9	-	13.1	-	-	1,609.8	29.4	-	-
셀바스AI	28,600	644	49	-	-	5.3	-	-	68.4	-	-	6.3	-	-
솔트룩스	37,250	418	27	30	39	6.3	12.6	10.7	-	-	118.9	3.2	-	-
마인즈랩	23,850	145	8	-	-	20.8	-	-	113.1	-	-	6.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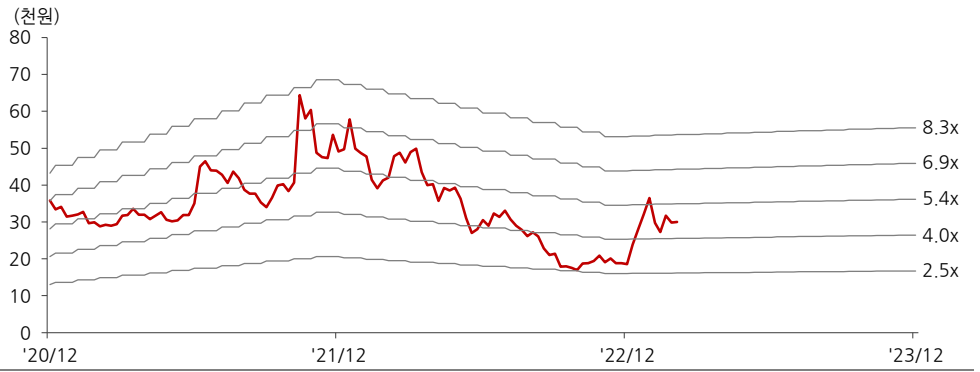
주: 2023년 3월 8일 종가기준, 2022년, 2023년 비교 기업의 실적 추정은 컨센서스 기준  
 자료: Quantwise, Refinitiv,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PB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PS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자회사 경쟁강도 우려와 전환사채 부담은 체크해야**

**투자관련 AI 플랫폼,  
로보어드바이저, 디지털 자산  
관련 경쟁강도는  
높음을 주지해야**

연결 자회사 퀴텐은 투자관련 AI 플랫폼 솔루션 및 AI 로보어드바이저, 디지털 자산 투자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이 분야의 성장성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관련 경쟁강도는 매우 높다. 퀴텐과 유사한 핀테크 기업으로 시장에 알려진 업체들만 해도 핀트, 파운트, AIM, 퀴터백 등 수많은 운용사/핀테크 기업들이 존재하고 또 새롭게 기업들이 신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산가들은 자산을 운용할 때 공모펀드, 사모펀드, 로보어드바이저 뿐 아니라 직접 투자(국내/해외 주식, 대체투자 등 영역)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의 선택지는 매우 넓다. 퀴텐은 이러한 척박한 운용 환경 내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퀴텐의 매출 성장이나 손익관련 기대감은 보수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퀴텐, 3월 7일에  
스마일게이트로부터  
300억원 투자를 유치**

다만 하나 긍정적인 것은 퀴텐이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이다. 퀴텐은 3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대표 성준호)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일단 300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자금을 유치받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관련 공시에 따르면, 이번엔 퀴텐은 신주 3,768,844주를 발행, 300억원을 제3자배정증자로 유상증자했고 이는 자본율로 30.3% 수준이다(증자전 발행주식 총수는 8,639,841주). 즉 참고로 퀴텐의 기업가치(post-value)는 약 1,000억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본 증자의 목적으로는 “금융AI 시장 선도를 위한 사업 확장과 R&D 투자 확대”로 제시되었다.

**전환사채 300억원 중  
178억원은 아직 미전환 상태**

바이브컴퍼니는 2021년 5월 3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본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월 8일 기준으로 전환사채 발행 권면 300억원 대비 178억원이 미전환 상태이다(전환가액 25,272원, 전환가능 주식수 703,941주). 동사 3월 6일 종가가 30,850원 이므로 미전환 전환사채는 향후 지속적으로 주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이는 동사의 오버행 부담이다. 다만 그 영향은 향후 동사의 성장성과 손익 개선 여부, 산업의 매력도 변화 등이 관건일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19	2020	2021	2022F	2023F
<b>매출액</b>	163	256	446	357	404
증가율(%)	N/A	56.9	74.5	-20.0	13.2
<b>매출원가</b>	91	170	355	328	317
매출원가율(%)	55.8	66.4	79.6	91.9	78.5
<b>매출총이익</b>	72	86	92	29	87
매출이익률(%)	44.2	33.5	20.5	8.1	21.5
<b>판매관리비</b>	75	119	183	213	228
판매비율(%)	46.0	46.5	41.0	59.7	56.4
<b>EBITDA</b>	3	-25	-77	-173	-130
EBITDA 이익률(%)	1.7	-9.7	-17.3	-48.5	-32.2
증가율(%)	N/A	적전	적지	적지	적지
<b>영업이익</b>	-3	-34	-91	-184	-141
영업이익률(%)	-2.1	-13.1	-20.5	-51.5	-34.9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b>영업외손익</b>	-3	10	-3	-27	-29
금융수익	1	1	14	13	14
금융비용	4	3	19	31	33
기타영업외손익	0	12	2	-9	-10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2	-6	-0	-1	-1
<b>세전계속사업이익</b>	-8	-30	-95	-212	-171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법인세비용	-1	-4	0	0	0
계속사업이익	-8	-26	-95	-213	-172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b>당기순이익</b>	-8	-26	-95	-213	-172
당기순이익률(%)	-4.8	-10.1	-21.3	-59.5	-42.5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8	-26	-88	-198	-160

**현금흐름표**

(억원)	2019	2020	2021	2022F	2023F
<b>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b>	3	50	-103	-216	-161
당기순이익	-8	-26	-95	-213	-172
유형자산 상각비	6	9	12	7	7
무형자산 상각비	0	0	2	4	3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7	68	-50	-9	5
기타	12	-1	28	-5	-4
<b>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b>	-39	-60	-415	62	-34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6	0	-84	2	-1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7	-16	-43	-2	-5
기타	-26	-44	-288	62	-28
<b>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b>	-15	230	359	205	148
차입금의 증가(감소)	-13	35	27	191	53
사채의증가(감소)	0	0	300	0	0
자본의 증가	0	178	11	14	95
배당금	0	0	0	0	0
기타	-2	17	21	0	0
<b>기타현금흐름</b>	0	0	0	2	3
<b>현금의증가(감소)</b>	-50	220	-158	53	-45
기초현금	81	31	251	92	145
기말현금	31	251	92	145	100

**재무상태표**

(억원)	2019	2020	2021	2022F	2023F
<b>유동자산</b>	87	309	552	514	516
현금성자산	31	251	92	146	100
단기투자자산	16	40	298	239	270
매출채권	24	10	19	15	17
재고자산	14	5	2	2	2
기타유동자산	3	3	140	112	127
<b>비유동자산</b>	228	281	446	436	431
유형자산	146	158	194	189	186
무형자산	5	43	62	59	56
투자자산	28	20	119	117	118
기타비유동자산	49	60	71	71	71
<b>자산총계</b>	315	590	998	950	948
<b>유동부채</b>	83	184	290	348	396
단기차입금	26	70	68	168	194
매입채무	7	34	126	101	114
기타유동부채	50	80	96	79	88
<b>비유동부채</b>	82	76	367	457	484
사채	0	0	260	260	260
장기차입금	78	68	98	189	216
기타비유동부채	4	8	9	8	8
<b>부채총계</b>	165	260	656	806	881
지배주주지분	149	318	323	139	74
자본금	24	27	28	28	28
자본잉여금	118	306	387	400	495
자본조정 등	5	7	14	14	14
기타포괄이익누계액	36	37	42	42	42
이익잉여금	-34	-59	-148	-345	-505
<b>자본총계</b>	149	330	342	143	67

**주요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F	2023F
P/E(배)	N/A	N/A	N/A	N/A	N/A
P/B(배)	0.0	5.6	9.2	7.6	23.3
P/S(배)	0.0	6.4	6.5	2.9	4.3
EV/EBITDA(배)	25.8	N/A	N/A	N/A	N/A
배당수익률(%)	N/A	0.0	0.0	0.0	0.0
EPS(원)	-164	-524	-1,637	-3,546	-2,644
BPS(원)	3,156	5,894	5,829	2,482	1,222
SPS(원)	3,450	5,209	8,262	6,401	6,692
DPS(원)	0	0	0	0	0
<b>수익성(%)</b>					
ROE	-5.2	-11.0	-27.6	-85.6	-149.8
ROA	-2.5	-5.7	-12.0	-21.8	-18.1
ROIC	N/A	-24.2	-54.7	-87.3	-68.4
<b>안정성(%)</b>					
유동비율	104.2	168.1	190.6	147.5	130.4
부채비율	110.9	78.6	191.8	562.5	1,320.1
순차입금비율	48.7	-40.3	16.6	166.5	406.9
이자보상배율	-0.9	-10.8	-6.1	-6.9	-4.3
<b>활동성(%)</b>					
총자산회전율	0.5	0.6	0.6	0.4	0.4
매출채권회전율	6.8	15.1	30.6	20.6	24.7
재고자산회전율	11.8	27.0	125.0	192.2	229.6

##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형 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정보 등 대외제공에 관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의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